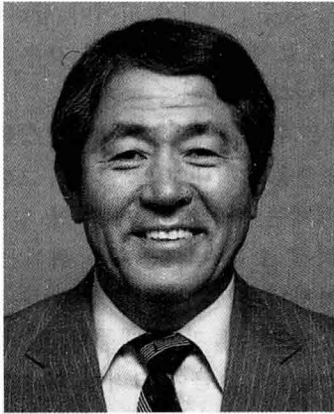


태평양지역의 방위산업 - 협력과 동반관계



● 柳俊馨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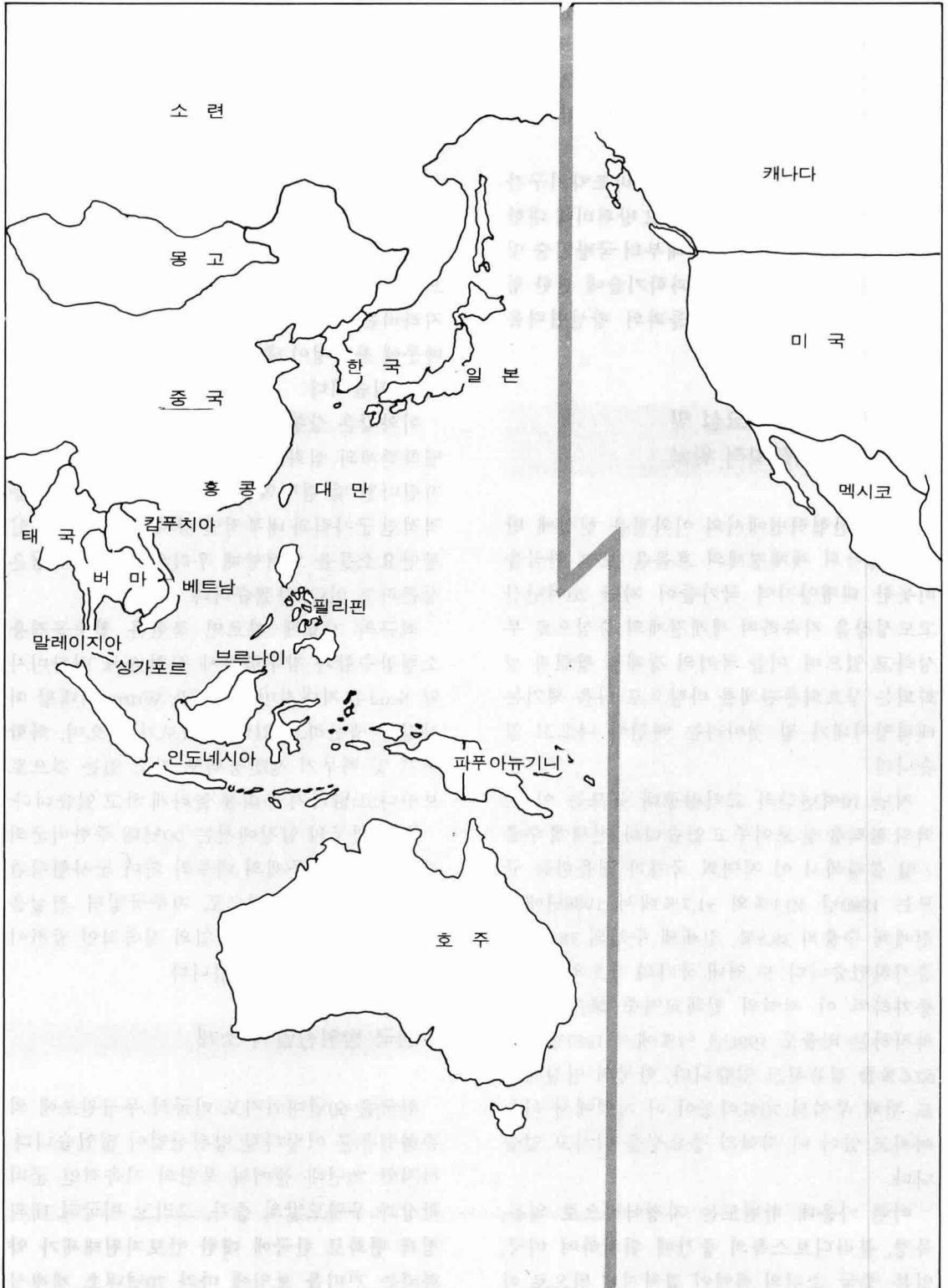
지금까지 방산협력은 서구의 방산선진국가 위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태평양지역에서도 각 나라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방산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지역내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산업의 생산능력이 증대해 가는 시점에서는 어느 국가의 생산기술 수준과 賦存資源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때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 석유를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석탄 및 액화석유가스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 호주, 그리고 천연고무로 유명한 말레이시아 등이 이 지역 방산협력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귀빈 여러분, 오늘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방산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이 자리에서 본인이 의견을 발표할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모임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미국 방위준비협회에 경의를 포함합니다.

국제방산협력의 개황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군이 필요로 하는 방위소요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에 의해 방산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무기체계의 복잡성과 정교함으로 인한 연구·개발 및 조달비용의 증가, 무기수출시장의 한계와 치열한 경쟁, 무기판매시 일반화되고 있는 군사절충교역 등으로 국가간의 방산협력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추세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각국은 방위산업을 국가적인 자산으로 삼고자 독립성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른 나라의 원료나



부품, 재료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협력은 지금까지 미국이나 NATO국가와 같이 군사과학, 기술수준이 비슷한 국가간에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간에 재래식 무기의 격차가 커지고 방위비에 대한 제약이 많아짐에 따라 '70년대부터 국방기술 및 방산협정을 체결하여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협력을 하고 있는 유럽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태평양지역의 중요성 및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국제방산협력면에서의 이와같은 현실에 반하여 昨今の 세계경제의 흐름을 보면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지난 20여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경제적 활력과 심화되는 상호의존관계를 바탕으로 다음 세기는 태평양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의 교역량증대 규모는 이 지역의 활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계 수출·입 물량에서 이 지역의 국가가 점유하는 규모는 1980년 30.3%와 31.7%에서 1988년에는 전세계 수출의 38.5%, 전세계 수입의 38.6%로 증가하였습니다. 또 역내 국가의 상호의존성도 증가하여 이 지역의 전체교역중 域内交易이 차지하는 비율도 1981년 55%에서 1987년에는 6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전체 무역의 70% 이상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 지역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일본, 북경, 블라디보스톡의 중간에 위치하여 미국, 일본, 중국, 소련의 세력이 겹쳐지게 됨으로 이

지역 안정의 핵심이 되어 왔으며, 역사적으로도 러·일전쟁, 중·일 전쟁 및 한국전쟁 등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균형이 무너질때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소련 등 동서간의 새로운 데탕트 분위기와 태평양시대의 도래에 즈음하여 표면적으로는 미·소를 비롯한 주변 4강의 화해와 긴장완화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기존의 전략적 잇점을 유지하려는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불안정이 내재하고 있는 이중적 특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소련의 대북한 군사적 밀착관계의 심화, 중국과 소련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전 및 협력의 가속화, 그리고 북한의 공격적인 군사력과 내부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안요소들을 고려할때 우리의 안보적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침투공격용 소형잠수함과 잠수함발사 신행 Styx 대함미사일, Scud-B 지대지미사일, Silk Worm 지대함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며, 화학 무기 및 핵무기 생산능력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져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90년대 주한미군의 감축내지 철수문제의 대두와 한미 군사협력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자주국방력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소개

한국은 60년대까지도 미국의 무상원조에 의존하였을뿐 이렇다할 방위산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들어와 북한의 지속적인 군비확장과 무력도발의 증가, 그리고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로 한국에 대한 안보지원태세가 약화되는 기미를 보임에 따라 70년대초 재래식

기본병기의 국산화와 방위산업의 조기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의 방위산업은 현재 K-2 소총, 지대지 유도탄, 다연장 로켓, 한국형 장갑차, 한국형 전차, 구축함 및 초계함, 그리고 F-5E/F 전투기생산, 차세대전투기 및 차세대헬기의 기술도입 생산을 할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한국의 방산업계도 그동안 타인자본에 의한 시설투자 과다로 재무구조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에 있었으나 수익성 호조와 활발한 유상증자에 힘입어 많이 개선되었으며, 방산업계의 시설투자도 '85년이후 경기의 호전으로 외국과의 기술제휴가 늘어나고 연구개발투자 및 새로운 설비대체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방위산업이 국가적 자산으로 발전하였으나, 아직까지 경쟁력 있고 내실있는 독자적인 방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취약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취약점은—

첫째, 짧은 기간 동안에 방위산업이 외양적

이고 양적인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내실있는 질적 성장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86년 현재 방산업체 전체의 조달가격 기준 평균 국산화율은 53.1%이며, 이중 총포, 탄약, 일반물자를 제외하면 국산화율은 4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즉 한국의 방위산업은 상당부분 해외의존형 방위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하여 선진국형의 방위산업으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체들의 연구개발체제가 정착되어야 하나, 한국의 경우에는 총매출고의 1.85% 정도만 연구개발비로 투자되고 있어 아직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셋째,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국내 무기소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체들의 가동률이 저하됨에 따른 경영수지의 악화와 군의 수요를 충족한 이후의 기존 생산시설을 유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넷째, 앞으로 한국군이 소요로 하는 무기체계는 고도정밀무기인데 반하여 대부분의 방위산업이 총포, 탄약, 기동, 물자 등의 재래식 무기생산을 위한 생산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의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항공, 유도탄, 통신 및 전자 등 고도정밀무기 생산을 위한 투자와 기반이 취약한 점 등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1990년대 한국의 산업 및 경제발전, 무기체계 소요, 군사과학기술의 수준, 그리고 우방국과의 협력 등 새로운 여건들을 고려하여 한국에 바람직한 방위산업 생산구조를 정립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무기체계의 해외구매나 국내생산 및 획득정책과정을 과학화 내지는 체계화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며, 미국 등 우방국가의 무기체계와 표준화 및 호환성을 높일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향후 한국군 전력증강에 필요한 고도정밀무기의 해외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一 笑 一 少 一 怒 一 老

입석과 좌석의 차이

어느 회사 경리부에서 부서단합대회를 겸해 스키장을 찾았다.

평소 야간스키장에서 남몰래 스키연습을 쌓아온 여사원이 스키부츠를 신으며 잘난체 하기 시작했다.

「저는 눈위의 마술사예요. 눈위에서 라면 부장님뿐 아니라 어떤 남자 사원과의 묘기대결이라도 자신있다구요.」

『정말, 오늘 저녁사기 내기할까』

「좋아요」

『좋아, 그럼 눈위에 오줌으로 이름쓰기를 하지』

한국은 그간 M16 소총, 155mm 자주포, F-5 E/F 전투기, 500MD 헬기, 한국형 전차 등의 공동생산사업을 주로 미국업체와 상호협력하에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력증강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차기 한국군 주력전투기가 될 KFP사업과 HX 헬기 공동생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무기체계의 공동생산 가능성도 적극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방산 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앞으로 어떤 국가와도 민간차원에서 공동이익을 전제로 계속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태평양지역 방산협력 방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증되는 태평양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역분쟁의 소지가 많은 이 지역의 有備無患을 달성하고 태평양지역 국가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몇가지 방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진국 기술과 개도국 기능의 결합입니다.

태평양지역 국가내의 방산선진국가에서 개도국의 생산비와 기능을 십분 활용하여 완제품에 대한 조립생산이나 부품조달을 개도국에서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방산 선진국들은 고도정밀무기의 개발에 주력하고, 이 지역의 개도국들은 일반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본병기 부품의 대부분과 고도정밀무기의 일부 부품을 저가로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생산량이 많지 않아 선진국의 업체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품목도 개도국에서는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합작투자에 의한 공동생산·판매입니다.

선진국가는 투자제공과 해외판매를 담당하며 개도국은 주로 생산을 담당하여, 일반 민수품의 경우처럼 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방식(OEM)으로 까지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을 예로 들면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은 역설계 모방생산 단계를 벗어나 의존적 연구 개발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한국은 대부분의 기본병기는 물론 일부 기술집약적 고도정밀무기의 공급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품질이나 가격면에서도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방산제품의 경우도 일반제품과 마찬가지로 미국 등 방산선진국에 O.E.M.방식의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 한국은 일부 기동장비 및 항공부품에 국한하여 O.E.M.방식에 의한 수출을 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모든 방산분야에 이르기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지역방산협의체의 모색입니다.

본인이 앞서 말씀드린 2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방산협력협의체의 구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간 태평양지역 국가들은 정치·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결합하여 지역단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큰

一笑一少一怒一老

짧은것도 모르면서...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매사에 호기심 많은 4살짜리 여자 꼬마애가 엄마에게 엉뚱한 질문을 했다.

『내가 처음엔 엄마 뱃속에 있었어?』

「그래」

『그럼 어디로 나왔어?』

「잘모르겠는데... 응~네가 어른이 되면 알게 돼」

『얼마나?』

「20년쯤...」

『거짓말. 몇년전 것도 모르는데 20년 후를 어떻게 알아...』

이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왔지만, 주로 경제적인 분야에 치중하였으며 방산협력에 대한 문제는 회피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방산협력은 서구의 방산선진국가 위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태평양지역에서도 각 나라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방산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지역내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산업의 생산능력이 증대해 나가는 시점에서는 어느 국가의 생산기술수준과 賦存資源이 중요한 요소가 아닐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때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석탄 및 액화석유가스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 호주, 그리고 천연고무로 유명한 말레이시아 등이 이 지역 방산협력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선진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우수한 기능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타 태평양지역국가와 협력을 한다면 세계 무기시장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목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고있는 태평양국가들이 각자의 필요성에 맞추어 적합한 장비를 보유할수 있게 되고, 방위능력이 증대됨으로써 유사시 미국이 자유진영의 리더로서 분담하게 될 방위부담을 경감시키게 됨과 동시에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도 기여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맺음말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다면, 오늘날의 태평양지역 국가들은 자원, 인종, 문화등에서 매우 다양하지만,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활력과 다이

너미즘은 어느 지역의 국가들보다 강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2차대전후 가장 낙후된 나라중 하나에서 반세기도 못되어 세계 10위의 무역대국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이 회의에 참석하여 여러 나라들과의 긴밀한 유대가 급속한 발전의 추진력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은 고도의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올림픽을 개최하였고 민주화를 달성하고 있으며, 노동조건이 크게 개선되는 등 한국경제는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수한 인력과 중간정도 기술능력을 지닌 한국과 방산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과 실리를 확보하는데 어느 나라의 협력보다 유리할 것이며, 한국으로서도 고도정밀무기의 생산목표나 경제성을 고려할때 업체간 다각적인 기술교류가 요청됨에 따라 국제협력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이러한 방산협력이 태평양지역국가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앞에 해결해야 할 일이 무수히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1520년 마젤란이 망망대해를 항해하여 필리핀에 도달하면서 태평한 해양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명명하였고, 이 신항로의 발견에 따라 세계경제의 흐름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협력하여 발전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함으로써 태평한 해양과 같이 무궁한 지역발전을 가져오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리라고 굳게 믿는 바입니다.

앞으로 태평양지역국가들이 협력할수 있는 이런 자리가 더욱 많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면서,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과 이와 같은 모임을 갖도록 한 미국방위준비협회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